

# 조계종 포교사 위상 높인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 포교사는 총 4278명. 사회적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포교사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종단이 본격적인 화두풀기에 나선다. 포교사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유도하면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포교원은 현행 포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활동정비를 위한 '포교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운용의 목적 불분명에 따른 포교사 정체성 미확립과 포교사 개인적 역량의 한계, 10년간 시행돼 온 현행 고시제도의 시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포교사고시 매년 2월로 변경

포교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폭넓은 포교활동을 지원할 포교사 등용의 틀 자체를 바꿀 예정이다.

## 팀별 포교활동통해 능력 검증 후 품수

### 올 고시 내년 2월19일...전문가 등용키로

지난 10년간 포교사고시를 통해 배출돼 온 포교사는 총 3263명이다. 그러나 그간 포교사고시는 불교대학 졸업자의 이례적 통과절차로 인식되거나 포교사고시 합격률이 불교대학 선택의 기준으로 오용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또 필기시험 위주의 자격고시를 통해서 지원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교원과 포교사단 측은 매년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되던 포교사고시의 시점을 불교대학 졸업 이후인 익년 2월 셋째 주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포교사가 되겠다는 열의를 가진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포교사고

시는 내년인 2006년 2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포교사고시의 불교입문, 불교방법론, 중현종법 이해 등의 현행 6개 과목을 유지하는 한편 1차 평가를 현행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대평가에서 특정과목의 과락을 포함한 응시자 전체 평균의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 포교능력 검증제도 마련

필기 합격 이후 2박 3일 연수만 거치면 바로 품수가 가능했던 현행 배

치면 바로 품수가 가능했던 현행 배치를 앞으로 포교사고시에 합격한 예비 포교사는 신행평가를 포함한 1박 2일 연수 후 6개월간 팀별 포교활동 결과를 토대로 2차 합격이 확정돼야 품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선발 자체를 활동영역별로 구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원자의 동기를 분명히 하고 포교의 지와 해당분야에서의 활동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포교원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 연수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팀 소속감을 이끌어 내 해당사항 및 포교사단과의 연계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 전문포교사 등용 제도화

포교원은 또 일반 포교사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포교사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포교사들을 전문포교사로 등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교원 황충기 포교계장은 "전문화 시대에 걸맞도록 포교분야의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며 "포교사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포교사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를 전문포교사 제도 내로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베이징 광제사에서 열린 불지사리언 조인식을 마치고 조인서를 보여주는 한중 양국의 대표들. 왼쪽부터 한국의 정주 총파 스님과 중국의 세정 스님.

## 불교계, 파키스탄 구호 팔 걸었다

불교계의 파키스탄 지진 구호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은 10월 21일 15명의 긴급 재난구호봉사대를 파키스탄 현지로 파견했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10월 29일 까지 약 2000명의 현지 환자를 진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자비나눔기금 전화 ARS 060-700-0482)

천태종(총무원장 윤덕)도 10월 31일까지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11월 15일 관문사에서 열리는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총무원장 윤덕 스님이 파키스탄 대사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우 · 유철주 · 김강진 기자

## 대불청, 동안거 청년 신행결사

11월13일~내년 2월19일까지

불자청년들이 불교의 전통적인 안거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가 운동으로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동안거 청년신행결사에 나선다.

정진기간 동안 대불청 회원들은 해당 원찰에서 매일 108배와 좌회정진, 청구, 청년불자공동서원발원문, 대불청 현장전문과 강령을 수지 봉독하는 한편 육바라밀 실천주간에 맞춰 신행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결사기간 동안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 내에 수행일지 코너가 마련돼 법우들의 수행일지와 법담, 관련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동안거 시작 한 주 전인 11월 6일 광역별 지정 도량에 모여 공동입재로 시작되는 청년신행결사는 내년 2월 19일에는 전체대중이 3000배 응맹정진을 한 뒤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회향한다.

김익석 회장은 "전국의 불교청년들이 동일한 발원, 청구의 수행을 통해 신행적 단결을 이루기 위해 이번 결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02)738-1920 이은비 기자

## 중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 전시 조인식

11월11일~12월20일 서울·부산서 친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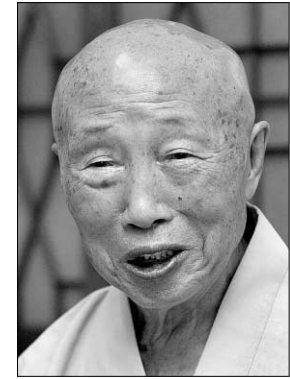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및 기타 유물(지하공 출토)의 한국 전시를 위한 조인식이 10월 17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열렸다. 공식협약서에는 한국측에서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 회(이하 봉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정주 스님이, 중국측에서는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세정(學誠) 스님 등 3개 단체 대표가 서명하였다.

한편 봉행위원회는 11월 10일 중국 법문사에서 이운 법요식을 개최하고 한국으로 이운한 뒤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계사, 잠실 체조경기장, 부산 백스코등에서 불지사리 친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정 스님은,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회(이하 봉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정주 스님이, 중국측에서는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세정(學誠) 스님 등 3개 단체 대표가 서명하였다.

베이징=박재원 기자

## 내가 청정해야 사회·국가도 청정

인터뷰 조계종 전계대화상 추대 성수 스님



"부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삶입니다. 출가대중이나 재가대중이 스스로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율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혜와 자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정주 보살사에서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된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하루도 끊이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와 전쟁, 부조리들의 원인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악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모름지기 안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어 공업의 과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계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는 스님은 "출가 대중들이 초발심을 잃지 말고 청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재가불자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행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청정하고 공평해야 종단과 사회, 국가가 청정하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계대화상은 종단이 계단을 열어 자격을 갖춘 출가자에게 계를 수여할 때 그 수계의 청정함과 계단의 권위와 적법성 등을 증명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계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성수 스님은 "수행과 계율의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며 "말로써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출생해 10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8년에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등의 주지를 역임했다. 황대선원 해동선원 법수선원 등 도량을 열어 출·재가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남동우 기자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원진왜란 당시 왜적을 무찔렀던 정무부 장군과 의병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던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뜰에서는 북관대첩비가 고국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리는 고유제가 열렸다. 북관대첩비는 10월 28일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11월 17일에는 반환을 기념하는 민족축제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고유제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왼쪽 첫번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가운데), 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초스 스님(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북관대첩비를 살펴보고 있다.

유철주 기자

## 조계종, 통영시 고발 검토 토지사용 불허 불구 공사

조계종이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통영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계종 사회부는 10월 10일 옹화사를 통해 종단 토지 일부가 케이블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사를 중지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영시에 요청했다. 8월 24일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통보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조계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영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공사금지기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영시 김호관 문화진흥과장은 "옹화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현등사 사리구 소유 문제 유홍준 청정에 해결 촉구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의 연이은 실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에 대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현등사 사리구 문제만은 제대로 해결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0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금불아미타여래좌상 건을 지적하며 "우리는 국가의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앞장서야 할 최고 책임자가 아닌 삼성문화재단의 책임자 유홍준을 연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문화재청장은 지난 시기 도굴과 장물거래 등으로 훼손되고 망실된 우리 문화유산을 바로 세워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분신사를 다하여야 한다"며 "도굴당한 '현등사 사리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 회복을 통하여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 불교구연동화대회 연다

대한불교어린이기자연합회(회장 지현)는 불교동화의 발전, 전파에 앞장서고 동화구연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불교구연동화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불교동화를 직접 구연한 5분 내외의 녹음테이프를 11월 6일까지 원고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은비 기자

# 世界佛教 海東 元曉宗

## 티벳 텐진 린포체스님 초청 灌頂摩頂受記 및 菩薩戒

귀의삼보하옵고 종단 대덕 큰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티벳스님을 초청하여 관정마정수기 및 대승보살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다감생래의 죄업소멸과 미래 성불의 인연을 심는 대각보리의 행원과 복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일시 : 2005년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총본산 보광사  
◆동참비 : 삼만원  
◆접수 : 봉행법회 3일전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정벽운 해광  
총무원장 법공정산

## 入宗 公告 안내

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장 법공정산입니다. 현대는 여러 다른 종교, 사상, 경제 및 정치체계의 과격한 대결을 초래하는 대립과 갈등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조화 평화운동을 갈망하고 모든 종파 종교 신앙과 사상적 차이를 초월하여 원효성사의 화쟁론은 그 위대한 사상이 될 것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사의 특성은 다양한 종파 분립 형태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민주화되어 다양한 종교와 종파를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현실과 불교적 실태에 적응하여 一心의 本覺으로 함께 뜻을 모아 진정한 和解, 無諍, 平和, 平等和合의 근본사상을 기초한 원효성사의 和諍思想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을 창종하였습니다.

■창종일 : 2004년 8월 1일

### 입종서류

- 1. 사진 5매(3/4)
- 2. 신상명세서
- 3. 주민등록등본
- 4. 도첩사본
- 5. 사찰 등록신청서
- 6. 입종비 : 이십만원

### 입종시 발급서류

- 1. 사찰등록증
- 2. 주지인명장
- 3. 신분증 (승려증)

##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 보광사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300-500)  
·총무실 : 전화 042)283-5896 팩스 042)285-0108 / 담당 : 동화스님 (보광사 주지, 종단 기획실장 011-769-0300)